

특례보금자리론도 인상... 대출금리 상승에 허리 휨다

주택금융공, 특례보금자리론 내달 11일 0.25%P 올려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4.33~6.93%로 반등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유지와 정부의 금리 인상 자체 권고로 소폭 하락했던 주택담보대출이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가계대출자의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부터 8월부터 금리를 올리기로 해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족, '빚투'(빚으로 투자)족 문제가 수면위로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 28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4.33~6.93% 수준으로 집계됐다.

약 두 달 전인 지난 5월 말의 연 3.91~7.02%와

비교하면 상단은 0.09%포인트 하락했지만, 상단수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하단 금리는 0.42%포인트 올랐다.

이번 금리 인상기 주담대 변동금리는 지난해 11~12월 정점을 찍은 뒤 이후 하락세로 전환, 지난 4~5월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연 5.67~7.80%에서 올해 4월 말 연 4.09~6.70%, 5월 말 연 3.91~7.02%로 하단이 3%대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연 3%대 주담대는 사라진 상태다.

지표금리인 코픽스(COPIX)가 지난해 11월 기준 4.34%에서 올해 4월 3.44%까지 떨어졌다가 5월 3.56%, 6월 3.70% 등으로 다시 오름세를 보인

탓이다.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상품(은행채 5년물 기준)의 금리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5대 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11월 연 4.90~6.98% 수준에서 올해 4월 말 연 3.76~5.86%까지 낮아졌다가 5월 말 연 3.92~6.15%에 이어 지난 28일 기준 연 3.77~6.11% 수준이다.

지난 4월 말과 비교하면 현재 금리는 하단이 0.01%포인트, 상단은 0.25%포인트 높다.

역시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AAA) 금리가 지난해 11월 말 4.83%에서 올해 4월 말 3.94%로 3%대까지 떨어졌다가 5월 말 4.05%, 지난 28일 4.23%로 반등한 영향을 받았다.

문제는 이런 대출금리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은이 반년 가까이 기준금리를 연 3.50%로 묶어 둔 사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 25~26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25-5.50%로 0.25%포인트 올렸다. 한국(3.50%)보다 최대 2.00%포인트나 높은 역대 최대 수준의 금리 격차다.

여기에 최근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면서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여겨졌던 한은의 금리 인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자부담 증가는 비단 5대 은행 대출 상품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 1월 말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8월부터 5개월 연속 금리를 계속 동결해왔지만, 그동안의 재원조달비용 상승, 대출 신청 추이 등을 고려해 오는 8월 11일부터 일반형 상품의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적용하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재원이 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는 지난 2월 10일 기준 연 3.925%에서 이달 25일 기준 연 4.428%로

0.503%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기준 연 4.15(10년)~4.45%(50년)였던 일반형 금리는 연 4.40(10년)~4.70%(50년)로 오르게 된다.

3억원을 만기 10년(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빌릴 경우 금리 인상 전에는 월 상환금액이 305만 9000원(연 4.15% 금리 적용)이었지만, 인상 후에는 309만 5000원(연 4.40%)으로 3만 6000원 늘어난다.

같은 금액을 만기 50년으로 빌렸을 경우 월 상환액은 124만 8000원(연 4.45%)에서 130만원(연 4.70%)으로 5만 2000원 증가한다.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찾는 이들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월 5만원 내외의 상환액 증가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주공금이 MBS 발행금리 상승 등을 추가로 금리에 반영할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기자 mskim@연합뉴스



지난 27일 '여행스캐치 남도투어적금' 수익금 기탁식에 참여한 모금주(왼쪽 세번째)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인 염규승(왼쪽 네번째) 광주은행 부행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남도투어적금' 판매 수익금 기탁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27일 전남도청에서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염규승 광주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행스캐치 남도투어적금' 판매 수익금 기탁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 기념으로 출시한 '전남여행' 테마 목적형 상품인 '여행스캐치 남도투어적금' 출시 1주년을 맞아 판매 적립금 1000만원을 전남도청 장학재단인 (재)전

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기탁했다.

'여행스캐치 남도투어적금'은 전남 지역 대표 관광지 방문시 스마트뱅킹을 이용해 간편하게 위치 인증만 하면, 재미있는 디지털금융과 금리 혜택을 얻을 수 있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출시 30일만에 1만좌를 돌파하기도 했다.

염규승 광주은행 부행장은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알리기 위해 출시한 상품 판매 수익금이 전남의 우수한 인재양성에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남·광주 대표은행의 사명감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금융서비스 제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뤘내기 위해 '순천사랑통장', '화순사랑통장', '신안 1004통장', '평해해남통장' 등 지역사랑통장을 출시해 판매실적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해당 지역에 기부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국세청, 순천권 신규사업자 '세금교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지난 28일 순천세무서 3층 대회의실에서 순천권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금교실은 신규 사업자에게 유익한 맞춤형 세부정보를 제공하고 세금불편 해소 지원을 위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인 부가가치세, 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명세서 제출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또 조세불복 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영세납세 지원 제도 등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 교육이 끝난 뒤에는 교육에 참여한 사업자들에게 맞춤형 세부상담도 제공했다.

앞서 광주국세청은 지난 6월 전남정보문화산

업진흥원과 지역 내 11개 창업 유관기관이 공동 개최한 '2023년 호남권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창업보육센터 역량 강화 워크숍'에도 참여해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세금교육을 실시, 18일에는 광주국세청 세미래교육센터에서 광주시내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를 주제로 세금교육을 펼친 바 있다.

양동구 청장은 "광주국세청은 창업·소상공인은 물론 장애인, 외국인 등 세부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세금교실을 운영한다"며 "전남 서부권과 전북권으로 확대 운영해 납세자들의 세금에 대한 궁금증과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광주본부세관 방문 직원 격려 고광호(왼쪽 앞쪽 첫번째) 관세청장은 28일 광주본부세관을 방문해 수출기업 육성과 FTA활용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을 당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관세청 제공>

광주·전남 중기 경기전망 3개월 연속 하락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의 경기전망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침체로 소비가 위축된 데다, 여름 휴가철 조업일수가 줄어드는 등 지역 중소기업계의 체감경기가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대호)가 조사한 '2023년 8월 경기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중소기업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76.9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78.6) 대비 1.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전국 평균(79.7)에 비해서도 1.1포인트 낮은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는 전월(75.2) 대비 3.8포인트 상승한 79.0로 전망된 것과 달리, 전남은 전월(81.9) 대비 7.1포인트나 급락한 74.8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76.7로 전월(76.9) 대비 0.2포인트 떨어졌고, 비제조업 역시 77.1로 전월(80.9) 대비 3.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 전망지수는 지난 6월 이후 3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기중앙회측은 내수부진과 인건비 상승, 하계 휴가철 조업일수 감소 등이 맞물리면서 중소기업 체감경기가 다소 냉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역 중소기업계가 꼽은 경영여로 사항(복수응답)으로는 내수부진(55.1%)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52.0%), 업체간 과당경쟁(33.9%), 원자재 가격상승(32.6%) 등 순이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효성, 미국서 6·25 참전 미군 용사 초청 행사

효성은 지난 27일(현지 시간) 미국 앨라배마주 헌츠빌에 위치한 육군 군사령부에서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군 용사 30여명과 가족 및 관계자 150여명을 초청해 참전 용사 초청 감사 행사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초청 행사는 6·25 정전 70주년을 기념해 진행, 미 육군 미래사령부 개인 베이커 준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행사를 열었다. 또 주한 미8군 사령관을 역임한 댄 페트로스키 중장 등 한국 군무 경험이 있는 다수의 퇴역 장성이 참석했다.

이중복 효성USA 법인장은 "70년 전 미국의 소중한 아들, 딸들의 숭고한 희생을 통해 현재의 자유대한민국이 있게 됐다"라며 "숭고한 희생 덕분에 한국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가 됐고, 현재 효성그룹은 6개 법인에서 1500여 개의 일자리를 미국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효성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6·25 참



전용사 초청 감사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효성USA는 전 세계 시장점유율 1위 제품인 타이어 코드를 비롯해 자동차용 카펫 등 자동차 산업용 소재를 현지에서 생산, 글로벌 완성차 및 타이어 회사에 공급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경총, 1614회 금요조찬포럼 열어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최호원 회장)는 지난 28일 광주시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차경진 한양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1614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강사로 나선 차경진 교수는 'Focus On Customer'를 주제로 강연을 펼치면서 "과거에는 매스 마케팅을 통해 대중성을 공략하는 광고에서 최근에는 고객 개인의 경험을 중시하는 마이크로 세그멘팅 전략으로 바뀌고 있으며 앞으로는 초개인화 마케팅인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총은 오는 8월 11일 안영근 전남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심장을 살리고 싶습니다'를 주제로 1615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경총 금요조찬포럼은 1990년 6월 1일 첫회를 시작한 이래로 33년 간 매주 금요일마다 경제, 경영, 인문학 등 다양한 시대적 현안을 주제로 저명인사와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 중이다. 한국기록원으로부터 국내 최장수 포럼으로 인증받을 만큼 전국적으로 그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공동사업 개발 컨설팅 지원 중기중앙회, 참여 조합 모집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8월 16일까지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신규사업 개발, 기존사업 활성화 등 공동사업, 전문컨설팅 비용을 최대 1500만원(조합부담금 10% 별도)까지 지원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로또복권 (제1078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6	10	11	14	36	38	43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2,141,604,938				12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 일치	55,626,103				77	
3	5개 숫자 일치	1,591,680				2,691	
4	4개 숫자 일치	50,000				135,352	
5	3개 숫자 일치	5,000				2,334,106	